

“여가활동시설 확충할 터”

보연 스님, 서원 노인복지관 6대 관장 취임



“전북 최초로 불교계에서 위탁운영하고, 하루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23명의 직원들과 200여 명의 봉사 자원봉사자들이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관장으로 재임하다가 3월부터 제6대 서원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보연 스님의 첫머리이다. 스님은 부관장으로 부임할

때부터 하루에 2-3차례씩 복지관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면서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스님은 이런 노력 덕분에 불교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평한다.

서원노인복지관은 2002년 개관 이래 각종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몇 가지 특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유관기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나눔 실천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죽음준비교육-시작을 말하는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웰빙을 위한 죽음 준비를 도와준다.

이 밖에도 ‘동아리 활성화 사업’ ‘전주시민한 소리하기’ ‘핸드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 정도가 불자인 사실은 지역 내 다른 복지관들을 타종교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연 스님은 “복지를 통한 포교의 장으로서 역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으로 자연스런 복지사업의 포교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6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서원복지관은 회원 중 400명 이상이 교당선생님 출신으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타 복지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 중이다. 스님은 직원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친절과 봉사활동의 정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연 스님은 또 올해에도 이미 복지관 지하층에 2000여 권의 장서를 구비한 북 카페를 열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지역 스님들의 후원으로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구비하는 한편 불교관련 서적을 구비해 포교의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규모를 50평 정도로 확장하는 한편 노래방 등 여가활동 시설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보연 스님은 서원복지관 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로 금산사 주지인 원행 스님의 불교복지 원력과 지역 스님들의 후원, 봉사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을 꼽는다. 스님은 또 다양한 장기를 가진 불교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복지관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이 서로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인간미 넘치는 복지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복지 서비스를 펼쳐 편안하고 신뢰 받는 복지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증심사, 33선지식 초청 법회

첫 날 월호 스님 법문, 300여 대중 참여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3월 19일 취백루에서 33불교선지식을 초청해 ‘무등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증심사 명사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33명의 한국불교선지식을 초청해, 무등산을 찾는 불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불교적 실

천의 아름다움과 오늘날 인류 문제를 불교적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3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첫째 강사로 나선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강사)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느냐, 그 길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증심사 명사 초청법회는 올해 동안 매월 음력 보름에 10명의 선지식을 초청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해 오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증심사 관계자는 “불교의 지향점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 닮자”

전북불교회관, 도영 스님 초청법회 봉행



전북지역 전법 교화도량인 전북 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조동제 전북지사장

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 초청법회를 25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3월 20일 4층 큰 법당에서 봉행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탐진치 삼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니 불자여러분들은 삶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불자들은 마음으로부터의 출가를 통해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전북신도회 김백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북 지역의 불자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 개원

재연 스님 초대 원장 취임... 한국불교 새지평 개척 기대



선운사 초기불전 전문 불학승가대학원 개원식 및 입학식.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는 3월 19일 조계종 최초의 초기불전 전문 불학승가대학원(원장 재연)의 개원식 및 입학식을 개최했다.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은 기존의 선운사 승가대학을 전환한 것으로 2년 간의 석사과정 동안 재연 스님이 원장을 맡고 각문 스님, 환성 스님, 도정 스님 등이 교수진으로 활동한다.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에는 6명의 학인이 입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전 해인사주지 도성 스님, 일본고려사 태연 스님, 범어사승가대학 용학 스님, 실상사 화엄학원 학장 연관 스님, 교육부장 범

인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개원식에서 초대 원장 재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준비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쳐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이 개원하게 됐다. 부처님의 원음을 연구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교학체계 가운데 그동안 잃어버린 고리를 재운다는 의미로 부처님의 원음을 공부하고자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한 선운사 초기불전 승가대학원을 개설했다”며 학인스님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입학식을 가진 6명의 학인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게서 설하신 법을 더욱 생생하게 알기 위해 초기불전을 연구하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지니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전등사, 내장사, 내소사, 도솔암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조록봉사단에서 승가대학원 개원식에 맞춰 대중공양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놓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덕유산 청다향



실용신인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게 : 25kg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전북지역 불기 2555년 봉축일정 확정

4월 11일부터 전주 시내 주요도로에 연등 설치

전북지역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정이 결정됐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위원장 원행·금산사 주지)는 전북불교회관에서 지역 각 종단과 사찰, 신행 포교단체 등 스님과 불교지도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계획안과 예산 세부계획을 3월 19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결의된 봉축행사 세부계획

안에 따르면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5월 10일 한 달 간을 봉축기간으로 하고 4월 11일부터 전주 시내 주요도로 10km 구간에 가로연등을 내걸고 동시에 선전 홍보탑 5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축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4월 16일에는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앞에 봉축 기원등을 점등하고 28일에는 35사단 세병호 연등

제가 5월 7일에는 봉축 연등축제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되며 각 시군별로 잇따라 연등축제가 열린다.

그밖에 단위사찰별로 전통등 만들기 대회, 연합합창제와 교도소, 복지 시설 등에서 부처님 봉축행사가 열리게 되며, 5월 14일 덕진 공원에서는 전북 어린이 큰 잔치로 봉축행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지역 사찰 ‘큰 시주’ 빙자 사기 극성

전남지역 사찰에 큰 시주를 가장한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사찰은 지난 연말 양복을 입은 한 노신사가 수료로 불전에 큰 시주를 한 뒤, 실수로 차비까지 불전에 넣었다. 스님에게 교통비를 요구했다. 이 사찰에는

지난 1월에도 한 신사가 찾아와 1억 원의 큰 시주를 할 생각이라며, 사찰에 체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광주지역 또 다른 사찰에도 1월 경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찰과 불교에 대한 상당

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고급 옷을 차려입어 행색만 보고 자칫 피해를 본 사찰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 불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각종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사찰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